

교회 3대 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라"(요한3서 1장 2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115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원로 김창인목사 귀국

4월26일 오후5시 KAL편
4개월동안 미국 등 27곳서 집회



원로 김창인목사가 오는 4월26일 오후5시 KAL편으로 귀국한다.

지난해(88년) 12월27일 출국한 이래 만 4개월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구라과 전역을 순회하면서 27회의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이번에 귀국케 된다.

해외 체류기간 동안 성도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예정된 모든 집회를 은혜스럽게 마무리했음은 물론,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매주 1회씩 위임목사와의 안부전화가 계속되었고, 주보를 통하여 원로목사 근황이 소개된바 있다.

합동월례회 개최

14교구 23일 소석관 212호실

14교구(교구장/마성락장로, 지도/김광석목사)는 4월23일(주일) 오후2시30분 소석관 212호실에서 남여 전도회 합동월례회를 개최한다.

충현올림픽 및 시온성 대행진 행사를 앞두고 열리는 합동 월례회에서는 참여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 시간도 가지며, 푸짐한 부채식식단으로 즐거운 시간도 제정하고 있다.

[4교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주저하지는 마라]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회 권사회,교회부흥과 나라위해

권사회(회장/이옥녀권사)는 매주 수요일마다 각 편별로 충현기도원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다.

지난 3월 조직 이후 1번서부터 시작되었던 기도회는 3번까지 진행되었는데, 계속 모임 때마다 기도회원 숫자가 늘어나 4월 19일 3반 모임에는 85명의 권사들이 참석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철야로 기도했

다.
교회 3대목표(천국일꾼 양성, 만민에게 복음전도, 빈약한자 구제)를 비롯하여 세계선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소속된 교구의 교역자와 권속들을 위해, 그리고 원로목사와 위임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충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시온성대행진이 은혜 중에 준비되고 개최될 수 있도록 특별기도했다.

새벽4시까지 진행되는 동 기도회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 집중적인 기도회를 갖고 있다.

이 일은 매주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교회 부흥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충현 상설전시장 본당 1층 로비에 마련

교회는 본당 1층 복도 입구 로비에 상설 전시장을 마련했다.

우리 교회와 관련있는 모든 행사를 기록한 사진전, 교회학교 학생들의 작품전 등을 연중 전시키로 했다.

이번주엔 「미래세계의 지도자 초청 전도회」 사진과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 충현국제술 선교단 제3회 공연 사진전을 전시한다.

작품구입 문의는 선교관 206호 홍보부로.



▲ 4월 세례식이 지난 4월 19일 오후7시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었다. (집례하는 이종윤 위임목사)



▲ 교회학교 장년1부가 반별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가졌다. (1등한 여성팀)

카메라초점

충현올림픽위한 특별기도모임 가져

교역자 · 조직위원 · 집행위원 · 교구장 등 70여명 참석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오진국장로)는 지난 4월18일 오후7시 만나홀 및 당회실에서 충현올림픽을 위한 특별기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1부 식사 때 전교, 2부 경전회 및 설명회, 3부 기도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70여 명의 조직위원, 집행위원, 각교구 교역자 및 교구장들이 참석한 경전회에서 이용선장로의 기도, 이세열목사의 고전4장 1~5절을 봉독한 후 "최선을 다합시다."란 제목의 말씀이 있었다.

설명회는 박승준 부위원장 사회로 각 팀 조직소개, 좌석배치(현장) 추첨, 그리고 충현올림픽 진행에 따른 전반적 설명을 박승준 부위원장과, 권승훈 경기전행부 임원이 각각

구 분	모 세	베드로	엘리아	바 울
단 장	남선우	김기정	박철환	마성락
부 단 장	강모용	이상현	이종국	박영식
총 감 독	이창호	송환장	김익경	김학전



▲ 지난 4월 18일 당회실에서 있는 충현올림픽 위한 특별기도회 모습

설명했다.
계속해서 3부 기도회는 올림픽지도위원인

김준태목사 인도로 "원만한 대회운영과 경기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좋은 일기와 전교인의 참여, 사고없는 안전대책"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충현가족의 연합과 일치, 사랑으로 결속하여 「시온성 대행진」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통령기도가 있었다.

각 팀별 단장, 부단장, 그리고 총감독 명단은 다음과 같다.

충현훈련복 판매 1벌에 8천원씩

5월 12일 충현올림픽을 앞두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날 착용할 충현훈련복을 성도들에게 판매하기로 했다.

동훈련복은 1벌에 8천원이며, 구입처는 교육위원회(소석관 103호)사무실이다.

지 상 강 단

본문: 빌립보서 4:12~13

사도바울이 빌립보교회를 세운지 10년쯤 지난무렵 바울은 로마감옥에 있었습니다 (주후 61~63년경).

감옥 안은 생활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어도 따뜻한 침구가 공급되지 않았습니 다. 해도 달도 하늘도 별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천정에 집을 짓고 자유로이 동서남북을 왕래하는 한마리 거미를 보고 그 벌레의 자유를 부러워 할만큼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실감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감옥 속에서 죄수 아닌 죄수 바울은 후회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집은 원래 부요하여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학문의 사사를 할 수가 있었고 부친의 집안은 로마 정부의 안정을 받아 당시 많은 돈을 주어야 얻을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채찍에 등이 터지고 주막에 뺨을 맞고 온몸을

돌에 맞아 검붉은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갇히는 조롱까지 당하면서 천사가 놀라리만큼 비천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기 30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비천한 자리에 서 견딜 수 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역시 그의 조상으로부터 이러한 특수기술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며 많은 돈을 벌었고 천막을 만드는 동안만은 아무런 생활의 궁핍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 다. 복음을 전할 때도 때로는 많은 사람의 넘치는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기도 하였습 니다. 육신적으로 풍부하고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릴 때에도 그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한가지 비결을 체득하고 있었습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비천 · 풍부 · 가난의 현실서 겸손 · 인내 · 감사의 생활을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알아야

위에서 바울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물한모금 마실 수 없는 지옥까지 맛보셔야했 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에 처할 적마다 바울은 그분을 바라보았던 것입 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마다 바울이 바라보 았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2.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살게 되면 그는 자칫 가난했을 때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만과 허영에 빠지고 마침내는 패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천막을 만드는 일에 일류가는 기술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그 자녀들에게 특출한 기술 한가지씩을 전수하여줍니다. 바울

다. 그것은 자신을 아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성도를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라는 겸손의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유명하게 알려진 지혜자 아굴은 잠언 30장8절에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이유인즉 부요하여 배부르고 근심없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려워해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두려웠다고 하였 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가난에 처하여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도적질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아량까지



지닌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하여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나는 까마귀도 돌아갈 집이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셨음에도 머리돌 곳이 없이 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내하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4.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아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고후 3:5)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 때에도 배가 부를 때에도 비천에 떨어질 때에도 존귀한 자리에 올라 갈 때에도 육신이 자유할 때에도 육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었고 건강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웃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 떨리는 손끝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열(목사·제8교구지도·세례부지도)

장로컬럼

르네상스를 향하여



김광신
(장로·기획실 홍보담당)

낭비적인 풍조 모두 없애고 경건주의운동 펼칠 필요하다

일본사람의 식탁은 언제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한다. 여유를 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다. 특별히 푸짐함을 잡채의식으로 가지고 사는 한국인에게도 더욱 그러하다. 반찬의 가지수에서도 감질나는 느낌이 들고 접시에 담겨있는 분량에서 불안함을 배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그 나라가 배고픔으로 절규를 하거나 푸짐한 식탁이 아니라고 데모를 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더구나 경제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일본이 가난이라는 이름 때문에 식탁이 그렇게 빈약한 것은 더욱 아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인의 식탁은 너무나 푸짐하다. 종류에서 그렇고, 그릇마다 넘치게 담겨 있어서 언제나 식사끝 하는 순간에 조금씩은 남은 양이 있어야 한다. 여유있는 백성

이라 하겠다. 가정집에서는 그 식단을 다음 기회에 활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음식집에서 그런 식단을 대할 때면 왠지 서글퍼진다. 사실은 이 낭비적인 풍조가 교회안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일회용으로 쓰여지는 인체물이 왜 그렇게 고급스러운가 묻고 싶고, 대부분의 유인물은 필요한

그래서 언제나 쓰다 남은 인쇄물이 산적해 있고 어찌다가 모자라면 비락이 떨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교회출석의 이유가 예배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찌해서 그렇게 많은 교인이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가이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교인이라면 특별한 교회봉사가 아닌 경우에 자진해서 식당출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자녀들에게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삼가도록 교훈할 의지

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충현교회에서부터 경건주의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중세의 르네상스를 오늘에 리마이팅 할 이유라고 보는 것이다.

위임목사 동정

이종윤 위임목사가 지난 4월 20일로 충현교회 위임목사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이목사 취임 이후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영적 각성운동이 전개되었고, 구제의 목이 대폭커졌으며, 성경공부 열기가 더욱 확산되었는가 하면 활화산 같은 기도운동이 누룩처럼 번져나갔다.

강남의 역삼동에 위치한 충현교회가 아니라 서울의 충현교회로, 한국의 충현교회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충현교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라면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말씀을 연구하시며, 폐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우렁찬 목소리로 열강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에 예르키까지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양육과 재도에 힘쓴 아목사께 더욱 영적인 충만과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충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원고모집

「주간충현」은 성도 여러분들의 원고를 수시로 접수합니다.

매주일 오후6시까지 「주간충현」편집국(소석관 115호)으로 보내 주십시오.

제2회 충현 부부 교양세미나 안내

올바른 가정 행복한 가정

강의주제 및 강사

일시 / 1989년 5월4일~6월1일
매주 목요일 오후7시~9시
장소 / 본당
입학대상 / 부부동반
등록비 / 부부당 1만원

5월 4일=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종윤목사)
5월 11일=그리스도인의 성윤리(맹용길목사)
5월 18일=그리스도인의 부부간의 대화(신상철박사)
5월 25일=그리스도인의 질병에 대한 자세(김일순박사)
6월 1일=그리스도인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호영박사)

교회기관 소개⑤

예배위원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교회는 주일예배가 4부로 진행되고, 저녁에는 찬양예배를 그리고 수요일에는 1부(오전11시)와 2부(오후7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신자의 믿음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그리고 말씀의 교훈과 헌신이 있게된다.

그래서 이런 중추적인 일들을 위해 예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경건한 예배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자체를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

특히 89년도는 조직이 대폭 확장되어 찬양대가 예배위원회로 수용되었고, 신설된 영어예배(오전 9시 갈릴리움)까지도 예배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1년 네차례 배풀어지는 성찬식 준비에 힘쓰며, 매월 진행되는 학습, 세례문답 및 세례식까지도 예배위원들이 도맡아

봉사하고 있다.

주일엔 온종일토록 시간별 예배진행에 절대로 차질이 없도록 사회자, 기도자, 헌금위원, 안내위원, 찬양대, 대원들을 예배시작 1시간 내지 30분 전에 예배당에 입장시켜

이렇게 뒤에서 수종드는 예배위원회는 금년에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예배시작 10분 전에 모두 입장하여 정성되고 경건된 예배가 드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배위원 일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정위치에서 봉사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새신자 등록과 안내를 위하여 새신자부 교사들과 협력하여 처음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안내하는 일 등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첫주일부터는 안내위원 복장을 빨간지고리와 흰바지로 유니폼을 만들어 착용케 하여 신선감과 예배분위기 조성에 한몫을 담당케 한 획기적인 변화도 있었다.

경건한 예배위해 숨은 봉사

안내위원 유니폼은 획기적 변화

예배위원회 각부서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예배위원장/김기정, △지도/김학진
△부위원장/김은호, 위원/김방진, 노광원, 정하우, △예배부장/김은호, △1부예배차장/

김여순, 윤재춘, 위원/최만수, 오인근, 김미자, △2부 예배차장/유윤진, 유정수, 위원/서동석, 한경선, 전용해, 이용현, △3부 예배차장/설관호, 백영희, 위원/정재복, 안병호, 조성래, △4부예배차장/김인관, 이신일, △찬양예배차장/이하영, 여옥기, 위원/이재기, 강봉수, 양종섭, 주열호, △수요1부예배차장/김진만, 정경자, 위원/한경숙, 한수미, △수요2부예배차장/박인건, 신수옥, 위원/박미련, 고병국, △영어예배부장/정하우, 차장/안춘진, 위원/김순, 김정애, 남정애, 정홍관, 이부성, 이호연, △성례부장/김방진, △성찬담당차장/주원홍, 민순애, △학습담당차장/한송규, 민건식, △성례담당차장/진홍용, 정봉조, △봉사담당차장/이희원, 위원/김명숙, 김상순, 김석운, 김옥례, 김은

시온성대행진 참모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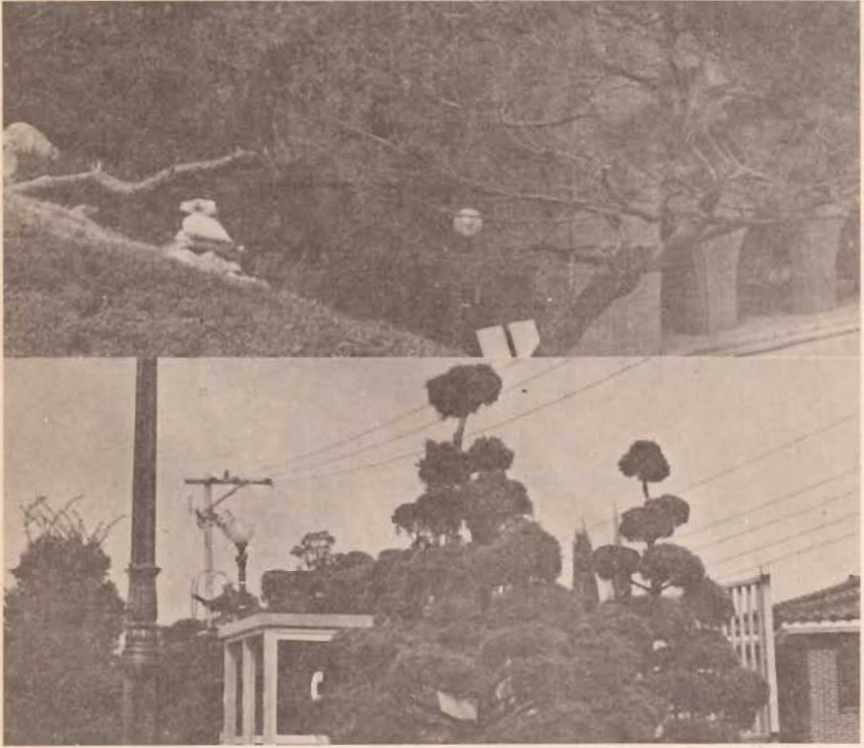
참모추가, 행사개요 작성도

오는 6월6일부터 실시될 「시온성 대행진」 참모회의가 지난 주일(4월16일)에도 지휘본부에 모여 참모를 추가하는 한편 행사 개요(취지문, 기도제목 등) 작성도 마무리시켰다.

새로 추가된 참모로는 기획참모에 김익경 목사, 홍보참모에 손경수장로, 행정참모에 윤성철장로, 동원참모에 이창호장로, 봉사참모에 정복인전도사, 그리고 기획에 김단용집사, 동원에 강동화집사, 행사에 최란수권사, 홍보에 이인선집사, 봉사에 방계운권사, 김태현집사이다.

협력하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교회당 주변을 나무로 푸르게



교회당 주변을 나무로 푸르게 조성기 위한 헌수 헌금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헌수운동에 참여하길 교회는 원하고 있다.

지난 주간 들어온 헌수 헌금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백죽심, 박용삼, 김인권, 함송현, 남혜숙, 이정순, 최명희, 오희명, 이찬세, 강병래, 김현주, 신갑범, 이원상, 황규린, 이재항,

김지영, 조려환 외 3인, 이 열, 김한선, 김복려, 유국현 외 3인, 김동삼, 박철훈, 무 명, 김정애, 한재웅, 김혜 리, 전경자, 임승진, 김남준, 강미숙, 손태기, 안옥자, 장혜순, 백정현, 박영신, 김형정, 윤명자, 이광구, 이희수, 김복희, 박승수, 장순양, 백광희, 노용우, 박세영 외 2인, 심영순, 박우택, 전명식, 이은희, 오을순, 박태준, 장명자, 박현숙, 김정숙, 무명 7인, 박순옥.

청년지도자훈련

청년2부 23일부터 실시

교회학교 청년2부(부장/손경수장로) 면려회(회장/원성수집사)는 제1차 L.T.C(지도자 훈련) 강과를 4월 23일부터 6월25일까지 소석관 402호에서 갖는다.

매주일 오후5시부터 90분동안 진행되는 동 강좌의 강의내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4월23일=하나님의 주권과 청지기의식: 김준태목사(청년2부 지도), ▲4월30일=성경적 지도자상: 김영구목사(소망부지도), ▲5월7일=하나님의 인도와 영적 불황의 타개=송태근목사(직전부 지도), ▲5월14일=기독교적 세계관: 김해규목사(대학부지

도), ▲5월21일=소그룹운동: 김익경목사(청년1부 지도), ▲5월28일=G.B.S 인도법: 이준경간사(IVF 간사), ▲6월4일=성경연구개관: 이준경전도사(성경연구원 지도), ▲노경모전도사(전 청년회장), ▲6월18일=개인전도: 김광석목사(고등부 지도), ▲6월25일=효과적 운영방법: 이준경간사(청년2부 신입부장)



△지난 4월 13일 오전까지 충현 살림길로대학 일대예배를 드렸다.

충현 프리즘

☆만나홀 식탁위의 예쁜 꽃

매주일 교회식당 만나홀에 내려가면 예쁜 꽃들이 식탁 위에 놓여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한결 즐겁게 해준다.

비록 유리컵에 꽃아진 한송이의 예쁜 꽃이지만 4백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넓은 홀의 식탁에 가즈런히 놓는 그 정성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

10교구 에스더여전도회 회원들이 손수

선교관, 예배실, 사무실 등을 청소하는 여성도들이 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들로 인해 더욱 깨끗해지고 있다. 감사할 일이다.

☆교회당 주변 녹화사업에 참여를

이미 보도되어 많은 성도들로부터 헌수 헌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번 녹화사업비는 약 3천6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1천여만원의 정성이런 헌수 헌금이 들어왔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당 녹화에 많은 관심도

봉사하는 이러한 작은 정성들이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기쁘게 해준다.

특히 이 꽃들은 우리 교회당에서 주간에 있었던 결혼식 행사 등에서 사용된 것을 버리지 않고 물에 적셔 놓았다가 다시 쓰는 알뜰함이 있어 더욱 좋아 보인다.

☆화장실 청소하는 여성들도

우리 교회당이 너무 커서 미화부 직원들로는 벅찰 때가 많다.

그래서 봉사의 손길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던 차에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교회본당 옆에 있는 교육관,

모든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모자라는 부분의 금액을 채워, 푸르고, 맑고, 보기에 좋은 충현교회당 경내를 만들었으면…….

☆깨끗하게 사용하자.

소석관(교육관)과 선교관이 도장공사(페인트칠)로 인해 깨끗해졌다.

깨끗한 우리의 예배실, 성경공부방, 그리고 사무실이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더러워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두가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꾸며보자.

충현올림픽
긴급좌담회

“하나로, 세계로, 주께로”

성도의 교제 · 협동심 함양 · 헌신의 도약대 형성

일시 / 1989년 4월 18일 오후 9시 30분

장소 / 교역자실

좌담회 참석자

사회/ 박승준 장로(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오진국 장로(올림픽위원장)

윤명식 장로(당회 서기)

김여순 집사(바울전도회 협의회장)

김현식 집사(경기진행부 임원)

이원길 목사(올림픽 지도위원)

나희주 집사(제직회 서기)

박성준 집사(경기진행부 차장)

박성명 집사(제직회문화부 차장)

사회: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충현올림픽 개최에 따른 긴급좌담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충현올림픽을 며칠 앞두고 관계 되시는 여러분의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직위원장이 이번 충현올림픽 개최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국: 충현올림픽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올림픽은 충현의 온성도들이 사랑으로 단합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성도의 교제, 협동심함양, 그리고 이러한 체육행사를 통하여 온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어울려 봉사와 헌신의 도약대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회: 충현올림픽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고, 팽파레의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 집니다. 원만한 올림픽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했고 필요한 예산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사회: 올림픽 지도위원이신 이원길 목사께서 충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견해를 피력해 주시지요.

이원길: 이번 행사가 운동회라고 해서 무의미하게 떠들썩 잔치가 된다고 또 그렇게 끝나서는 안될 줄 압니다.

성도들의 모임인만큼 신령한 뜻을 발견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모든 일이 무리없이 진행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경기는 최선을

구, ⑩성령의 열매따기, ⑪ 400미터 2인 3각, ⑫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개인별 경기로 ①믿음, 소망, 사랑, ②충현교회 건축 등이 장애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회: 충현올림픽을 원만하게 진행키 위해서는 이번 부서들이 조직되었으며, 그 부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오진국: 대회를 총괄할 경기진행부가 있으며, 팀별, 교구별 참여를 권장할 동원부, 대회 현장의 음향, 전기기기 설치관리를 할 시설관리부, 각종 경기 심판과 진행을 위한 심판부가 있습니다.

또 경기 종합점수를 관리할 기록부, 경기종별로 수여되는 상품 구입관리의 시상부, 그리고 전령부, 재정부, 섭외부, 홍보부, 봉사부, 의료반, 차량경비부

사회: 충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나름대로의 개인 소견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운영 방향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순서없이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식: 교회개신과 영적 성장의 차원에서 이번 올림픽행사를 계기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까지 적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교회에서 머무르는 교회가 아닌 향도자적인 교회로서 전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와 세계교회에 이바지하는 충현교회의 면모를 부각시키도록 합시다.

이원길: 은혜로운 교회인 우리 충현교회가 이 행사와 함께 더욱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그리고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지켜주시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인주의 지양 팀웍 위주의 경기운영
리크레이션적인 체육대회로 부담없어

결실을 맺는 귀한 행사가 될 것을 소원합니다.

박성명: 충현교회 외적인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문화의 확산(선교적 차원에서)에 힘쓰면서 교회의 맹점으로 대두된 사랑결핍 상황이 해소되고, 그뿐 아니라 성도간의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마당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응원상에 비중을 두어 짜입세었고, 재미있는 충현올림픽이 되도록 힘썼으면 합니다.

김현식: 대회운영 관리의 다섯가지인 ①전교인 참여, ②시설 설치 관리, ③즐거워진행되기 위한 운영의 묘, ④입·퇴장의 관리, ⑤분위기 조성의 홍보가 활발하게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박성준: 입장식 행사엔 충현올림픽 피켓을 선두로 대형 충현기가 10명의 장로님들에 의해 운반되며, 495명의 팀단장, 교구단장, 부단장, 감독, 선수들이 팀별 및 교구별로 입장케 됩니다. 그리고 남여 2인의 햇불 봉송과 명예대회장의 성화대 점화와 함께 교부풍선 산포와 할렐루야 찬송이 운동장을 메아리치게 됩니다.

오진국: 이날 점심은 각교구 산하 지역 및 구역별 가족별로 도착락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두 곳에 간이매점을 설치합니다. 여전도회와 권사회가 운영토록 하고, 김밥, 라면, 과일, 음료, 커피 등을 원가로 봉사할 계획입니다.

사회: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날 향락산업의 사회현실 속에서 기독교문화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활성화하며,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를 이번 충현올림픽에서 그 본모기를 표출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구별 가장행렬, 응원전이 큰점수
햇불봉송 · 성화대 점화 등 다채로와

는 교회차원의 갖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 집니다. 당회 서기이신 윤장로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명식: 작년에 우리 교회는 많은 행사들을 치렀습니다.

영적 자성운동인 40일 새벽기도 흥해작전을 비롯하여 여리고작전, 장애자를 위한 바자회, 그리고 8년8개월 동안 오랜 공정을 거친 교회당 건축 마무리와 헌당식 등 굵직한 일들을 해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돌린 것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충현의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은 물론이려니와 대교회가 안고 있는 사랑결핍 오해가 사라지고 성도들간의 친교와 단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현올림픽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될 줄로 믿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아낌없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이 행사를 흔쾌히 결정

다한 자만이 상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로 이번 올림픽의 경기운영 방향, 경기내용, 준비사항 등을 각분야별로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성준: 우선 리크레이션적인 체육대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흥미와 안전성을, 승부보다는 협동심, 무절서가 질서의 생활로 바뀌고, 개인주의 사상이 팀웍위주로, 그리고 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현식: 이번 대회는 우선 온 교구가 다 참여하는 참가상과, 입장식 때의 가장행렬에 초점을 맞추면서 11가지의 게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14개 교구를 4팀으로 나뉘어 연합교구를 형성하고 팀별로 경기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게임종류는 ①구원열차, ②기마전, ③슈퍼축구, ④100미터 달리기, ⑤충현교회 건축, ⑥줄다리기, ⑦400미터 릴레이, ⑧ 거북이 릴레이, ⑨밤야

등으로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회: 이번 행사의 동원계획은 어떻게 세웠나요?

김여순: 우리 교회는 14개 교구에 바울·디모데 남전도회와 한나,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회 등 다섯지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을 충분히 활용하여 동원계획에 참여케 하는 한편, 교회학교 24개 부서 부장들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을 참석시키도록 하고, 각 교구의 교구장 및 지도교역자를 통하여 전체가 참여토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나희주: 제직회도 여러 부서의 부서장들로 하여금 책임할당제의 동원을 권장토록 하였습니다.

잔치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대담들로 하여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무너지고, 팔짱과 성령으로 재부장되는 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원길: 레위기 24에 보면 메즐기마다 거룩한 성화로 모이는 내용이 여러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충현올림픽 행사도 거룩한 성화가 되도록 힘써야 하고, 잔치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교회가 목표하는 세가지 기둥인, 교육, 선교, 구제의 사명이 완수되길 기도합니다.

